

태양의 품에 안겨 빛나는 삶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지도 벌써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전향장기수, 그들은 수십 년간이나 피외지역의 철창속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당과 수령,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혁명적지조를 지켜싸온 통일 애국투사들이다.

손발을 얽어맨 철쇄와 높디 높은 감옥의 담벽은 그들의 생사여부에 대한 소식조차 끊어버렸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예타게 기다리던 가족들마저도 그들과 다시 만나는 것을 단념하였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은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싸온 비전향장기수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계셨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일군들에게 30년, 40년 옥중투쟁을 하면서 전향하지 않은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혁명가들속에서만 나오었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오는 문제를 혁명의 길에서 우리 당을 받들어 싸운 동지들에 대한 혁명적리론 여거며 혁명의 랑도자가 전사들에게 베풀어야 할 고귀한 사랑으로

간주한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이러한분이사기에 비전향장기수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수많은 조치들을 취해주셨으며 주체89(2000)년 6월에는 이 문제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한 조항으로 크게 명문화하도록 하시었다. 하늘도 감복할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의하여 주체 89(2000)년 9월 2일 마침내 한 두사람도 아닌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한낱한시에 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길수 있었다.

지금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20여년전 민족의 장한 아들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백리연도에 꽃바다를 펼쳐고 《축하합니다!》, 《장합니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소리높이 웨치던 환영군중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오는 듯하다. 세계언론들이 대서특필한바와 같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국에로의 귀환은 《지구행에서 락원행에로의 인생전환》이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자애로운 환포에 안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기 며칠전인 주체 89(2000)년 8월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 애국자, 혁명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조국의 품에 안기면 조국통일상도 수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도, 새 당원증도 안겨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창밖으로 별무리가 반짝이는 밤하늘을 한동안 주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들이 세운 위훈이 저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비전향장기수들이 돌아오면 즉시 조국통일상수여식을 만수대의사당에서 국가행사로 크게 하라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한낱한시에 조국통일상과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 받게 되었다.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믿음은 이분이 아니었다. 0.75평의 감방에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절을 짓밟힌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가장 훌륭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었다. 처음 일군들은 비전향장기수들이 평양시교외의 어느 품치좋은 산기슭에 자리잡고 살도록 할 생각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둠과 고독을 제일 싫어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심리까지 헤아리시어 아늑한 곳이라 하여 그들을 조용한 교외에 자리잡게 해주시었다. 그들이 바라본것은 가, 그들이 바라본것은 들끓는 생활의 한복판인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람

들이 불비고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차넘치는 수도의 한복판에서 수십년간 생사운명을 함께 한 동지들과 그림던 인민들과 때일이 어울리며 조국의 벽간 속걸을 느끼고 살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비전향장기수들은 수도의 중심부에 있는 행복의 보금자리에 삶의 맛을 내리게 되었다.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이 세상 제일가는 보금자리를 마련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최상으로 우대해주고 근심걱정이 없도록 살수 있도록 온갖 사랑의 조치를 다 취해주셨다.

백발로총각신세를 면할수 없었던 비전향장기수들을 친 부모의 심정으로 결혼상의 신랑으로 앉혀주시었고 70, 80, 90톤 생일을 맞는 전사들에게 생일상도 안겨주시었으며 철따라 새옷도 지어주도록 하시었다. 또한 고급화장품과 지팡이, 안경까지 보내주시었다. 진정 비전향장기수들이 입고 쓰고 덮는 모든것에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손길과 따뜻한 온기,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 없다.

주체91(2002)년 여름, 수십년세월 철창속에서 신음하던 비전향장기수가 조국의 품에 안겨 꽃같은 딸자식을 보고 딸애의 이름을 지어주시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편지를 삼가 드려왔을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까지



백발로총각신세를 면할수 없었던 비전향장기수들을 친 부모의 심정으로 결혼상의 신랑으로 앉혀주시었고 70, 80, 90톤 생일을 맞는 전사들에게 생일상도 안겨주시었으며 철따라 새옷도 지어주도록 하시었다. 또한 고급화장품과 지팡이, 안경까지 보내주시었다. 진정 비전향장기수들이 입고 쓰고 덮는 모든것에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손길과 따뜻한 온기,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 없다.

주체91(2002)년 여름, 수십년세월 철창속에서 신음하던 비전향장기수가 조국의 품에 안겨 꽃같은 딸자식을 보고 딸애의 이름을 지어주시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편지를 삼가 드려왔을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까지

백발로총각신세를 면할수 없었던 비전향장기수들을 친 부모의 심정으로 결혼상의 신랑으로 앉혀주시었고 70, 80, 90톤 생일을 맞는 전사들에게 생일상도 안겨주시었으며 철따라 새옷도 지어주도록 하시었다. 또한 고급화장품과 지팡이, 안경까지 보내주시었다. 진정 비전향장기수들이 입고 쓰고 덮는 모든것에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손길과 따뜻한 온기,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 없다.

뜻깊은 국가적명절과 기념 일들을 계기로 승업한 마음 으로 국가계양식에 참가할 때마다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이 흘렀다. 필력은 그 기발아래서 인민은 영웅인민으로 자랐고 조국은 젊음과 힘이 넘치는 불멸의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우리의 국기는 오늘도 힘있게 펴리고 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 하늘가에 높이 날려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센 승결을 더해주시 람홍색국기를 목숨처럼 소중한 그 기록에 인민은 자기의 꿈과 리상, 운명을 걸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위인인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람홍색 공화국기발은 세기를 이어 빛나고 창공높이 더욱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지난 7월, 경사스러운 전승결핵축의 열병광장에서 승업히 울리는 국가의 구걸을 나직이 따라 부르시며, 창공높이 오르는 우리의 공화국기를 바라보시며 뜨겁게 눈물 지으시던 절세위인의 기록하신 모습은 우리 공화국이 무엇으로 그토록 성스럽고 강대한가를 만사람에게 다스금 뜨겁게 각인시켰다. 절세위인의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애국의 세 계는 온 나라 인민을 감동시 키며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주고있다. 장 철 룡

뜻깊은 국가적명절과 기념 일들을 계기로 승업한 마음 으로 국가계양식에 참가할 때마다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이 흘렀다. 필력은 그 기발아래서 인민은 영웅인민으로 자랐고 조국은 젊음과 힘이 넘치는 불멸의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우리의 국기는 오늘도 힘있게 펴리고 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 하늘가에 높이 날려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센 승결을 더해주시 람홍색국기를 목숨처럼 소중한 그 기록에 인민은 자기의 꿈과 리상, 운명을 걸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위인인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람홍색 공화국기발은 세기를 이어 빛나고 창공높이 더욱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지난 7월, 경사스러운 전승결핵축의 열병광장에서 승업히 울리는 국가의 구걸을 나직이 따라 부르시며, 창공높이 오르는 우리의 공화국기를 바라보시며 뜨겁게 눈물 지으시던 절세위인의 기록하신 모습은 우리 공화국이 무엇으로 그토록 성스럽고 강대한가를 만사람에게 다스금 뜨겁게 각인시켰다. 절세위인의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애국의 세 계는 온 나라 인민을 감동시 키며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주고있다. 장 철 룡

조국과 해외동포들의 권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주체52(1963)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공민이 될수 있는 사람,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 및 그로부터의 제적, 그 원칙과 절차, 공화국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치적 및 법적보호를 규정하고있다.

이 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가졌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 공화국공민들간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또한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 자녀들,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자,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자들도 공화국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 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으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은 공화국으로 귀국하거나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주체111(2022)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려일어 조국의 통일발전과 통일전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총련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주체56(196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대의원선거에서 한덕수장장을 비롯한 총련중앙 일군들과 상공인, 7명, 조선대학과 동 산학단체 일군 7명이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이것은 공화국창건후 처음으로 되는 일로서 재일동포들의 생활

존엄높은 해외교포단체로서의 긍지를 떨치기 위해

—총련에서 음악무용대 공연 《우리의 국기》 준비사업 활발히 진행—

공화국창건 75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재일동포사회가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바쁘고있다. 총련에서는 공화국창건 75돐을 동포사촌에 위인정중의 열기가 끓어넘치고 어머니 조국을 끝까지 따르는 열렬한 애국심이 분출되는 양양된 분위기속에서 성대히 경축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음악무용대공연 《우리의 국기》준비사업도 그중의 하나이다. 대공연은 영광스러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절세위인들의 건국업적과 절세위인들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혈연의 정, 어머니 조국을 우리리에 애국애족하여온 동포들의 투쟁의 삶을 되새기며 주체예술의 자랑찬 화폭으로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단체로서의 긍지를 더욱 뚜렷이 과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화국의 발전사에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총련과 재일동포들속에서 벌어진 애국운동, 대중운동들도 뒷받쳐 아로새겨져있다. 해방된 이듬해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사한 《재일 100만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어 조선사람이라는 민족적 긍지를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재일동포들속에서는 민족교육사업을 위한 전 민족적인 운동이 벌어졌다. 민족을 되찾는 운동을 하여 일본에 있는 동포들을

또한 대공연은 그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동포사회가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이게 하며 민족문화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도 중요한 계기로 된다. 공연에는 금강산가극단과 조선가무단을 비롯한 전문예술인들은 물론 문예애호가들, 공연참가를 희망하는 각종 조직, 단체에 속한 동포들과 학생들 다 참가하게 된다. 지금 총련에서는 대공연준비사업을 활발히 벌어나가고 있다. 지난 4월 음악무용대 공연을 위한 실행위원회가 조직된데 이어 여러 차례에 걸쳐 공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공연에 참가하는 예술단체

들과 동포들의 열의 또한 대단하다. 그들은 공연을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로, 동포사회통합의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밤낮을 이어나가 긴장한 창작 전투를 벌어나가고있다. 7월순수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에 출연하는 무용조성원들의 합동연습이 진행되었는데 출연자들은 우리의 출가락과 넘치는 열정으로 어머니조국의 행복을 생활과 민족의 우수성을 마음껏 펼쳐보이고싶다고 하면서 저지마다 흥분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지금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려는 동포들의 열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라 국



공화국의 발전사에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총련과 재일동포들속에서 벌어진 애국운동, 대중운동들도 뒷받쳐 아로새겨져있다. 해방된 이듬해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사한 《재일 100만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어 조선사람이라는 민족적 긍지를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재일동포들속에서는 민족교육사업을 위한 전 민족적인 운동이 벌어졌다. 민족을 되찾는 운동을 하여 일본에 있는 동포들을

다 조선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강령적가르치심을 받들고 진행 된 조선사람되찾기운동, 1961년 1월부터 진행된 모범 분회창조운동 등은 각계층의 재일동포들을 하나의 애국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고 총련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게 하였으며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으로서의 총련의 강화발전에게 크게 이바지하였다.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해 언제나 마음세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련이 지부를 거점으로 동포들의 권리옹호운동을 중심적위치에 놓고 대중운동을 벌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총련에서는 민족적권리운동을 비롯하여 동포생활향상과 상부상조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운동들을 제

일동포들의 지향과 생활상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힘있게 벌리였으며 이것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고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총련의 주체적애국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동포들찾기운동에 전조직적인 힘을 넣으며 이 운동을 다양한 민족문화운동과 대중체육

활동, 권리옹호운동, 봉사복지활동과 밀착시켜나감으로 동포들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들의 힘에 의하여 추진되는 위대한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오늘 총련에서는 《새 전성기 애국애족모범창조운동》, 《지부를 애국애국의 성들로 다지기 위한 혁신운동》을 비롯하여 조직건설과 민족교육사업, 동포권리옹호를 위한 다양한 명칭의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어나가고있다. 최 성 일